

작품 개요

「박쥐」는 시인 유치환(柳致環, 1908 ~ 1967)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서 24세 되던 1946년 8월 14일 완성되었고, 1984년 10월 16일 수정되었다.

1946년 8월 19일 HLKA 방송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 독창, 나운영 반주로 초연 발표되었고,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아흔 아홉 양』에서 출판되었다.

작품 해설

이 곡은 그의 다른 초기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화성 구사와 자연스런 전조 그리고 노래가락과 대비되어 반주의 저음부에서 흐르는 대위법적 선율선이 작품을 이루는 주된 요소로 쓰여지고 있다. 풍부한 화음감과 조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선율은 순차진행을 주된 골격으로 사용하여 부르기 쉽게 작곡되었다.

표면적인 분석으로는 전형적인 조성과 음계에 의한 유럽풍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종지 부분에 강조되는 완전4도의 음정구성에서 한국적인 멋이 살아나는 곡이다. 또한 저음부의 대선율을 장식하고 있는 꾸밈음은 강박에만 나타나고 음정은 완전5도로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국악의 선율을 느끼게 한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박 주

柳致榮 作曲
羅逸榮 作曲

Andante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aged paper and consists of several systems. Each system includes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bass clef). The key signature i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tempo is marked 'Andante'.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p' (piano) and 'f' (forte).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the vocal line. The paper shows signs of age, including some staining and a torn edge at the bottom right.